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관세청간 신상품 품목분류 조기확정체제 구축 MOU 체결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신상품 품목분류조기확정체제 구축 MOU를 체결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이하"협회"라 한다)와 관세청은 신상품의 수출입 동향 및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한 업계의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 납부를 지원하고 나아가 추징사례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업계와 세관당국간의 조세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협회는 회원사 등에서 새로이 출시 또는 수입하는 신상품에 대한 자료를 출시 또는 수입초기 단계에서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조치한다.

관세청은 협회가 통보한 신상품에 대하여는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품목분류를 확정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협회에 통보한다. 다만, 품목분류 확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 검토결과를 우선 통보한다.

협회는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내용을 회원사에 즉시 알려 회원사가 적정한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관세청은 신상품에 대한 WCO등 국외의 중요 품목분류 동향 및 HS 협약 개정에 대한 정보를 협회에 적극 제공하도록 조치하며 협회는 이를 회원사에 통보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목적

- 첨단 신상품의 품목분류를 조기에 확정하여 업계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고 추징 및 불복청구 사례를 방지
  - MCP 등 첨단신상품은 출시단계부터 모니터링하여 신고오류 장기화 예방

  ※ '04년 개별사후심사 과정에서 품목분류로 인한 추징은 2400억원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 민관협의체의 상시 운영으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관세청은 신상품에 대한 WCO 등 국내외 동향 및 정보를 신속제공
  - 국내 Gobal수준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 마련

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사업 연수생 모집안내

정부의 동반성장에 의한 취업기회 확대와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진흥회는 아래와 같이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을 실시합니다.

임베디드시스템 기술인력 양성 및 현장연수 사업

- 사업목적
  -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이공계 미취업자 취업률 제고
  -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mismatch 해소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현장맞춤형산업기술인력 공급

- 사업방침
  - 훈련생 선발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 선발인원은 정원의 100%를 선발하며 정원외 20%를 예비합격자로 한다.
  - 정원에 미달될 때는 확정훈련생 명단 제출전일(사업개시 후 1개월)까지 추가 모집한다.

- 사업범위
  - 1차 사업기간 : 2005. 4. 18 ~ 2005. 9. 30 (24주)
  - 2차 사업기간 : 2005. 6. 27 ~ 2005. 12. 9 (24주)

- 사업개요
  - 기본교육: 직무소양교육 및 임베디드C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시스템의 이해
  - 전문연수: RTOS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작,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플레이어 제작 프로젝트 수행
  - 기업연수: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원사 및 관련업체(60여개사) 산업 현장에서 업무체험 연수